

상담자 발달 수준별 사례 개념화의 차이: 개념도를 통한 인지구조를 중심으로

손 은 정[†]

이화여대 심리학과

이 혜 성

한국청소년상담원 원장

본 연구에서는 사례 개념화에 나타난 상담자 인지 구조의 발달 수준별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사례개념화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들에게 실제 상담과정을 모의로 녹화한 CD를 보여준 후, 예비 연구 과정에서 개발한 모형의 개념도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개념도에 나타난 개념과 범주에 대해서 전문 상담자, 중간 상담자, 초보 상담자의 세 집단간에 나타나는 질적인 차이와 양적인 차이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양적인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 개념의 수에 있어서 세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범주의 수에서는 세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질적인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 개념에 대한 내용분석에서는 17개의 유목이 나타났고 6개의 유목에서 발달 수준별 차이를 나타냈으며, 범주에 대한 내용분석에서는 8개의 유목이 나타났고 2개의 유목에서 발달 수준별 차이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유목들의 객관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다차원 척도법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추론 대 묘사 그리고 분화 대 미분화라는 두 가지 차원을 발견하였다. 발달 수준별로 차이를 나타내었던 유목들을 다차원 분석에서 나타난 두 가지 차원들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살펴본 결과, 전문 상담자는 중간 상담자나 초보 상담자에 비해 사례 개념화를 하는데 있어서 추론하는 특징이 많음을 알 수 있었으며, 초보 상담자에서 전문 상담자로 발달해 갈수록 분화하는 특징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상담자 인지 구조의 발달 수준별 차이는 상담자의 발달 수준에 따라 사례 개념화를 교육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실제 상담 사례 장면에서도 상담자의 인지 구조가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복잡하게 발달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어 : 개념도, 사례 개념화, 상담자 교육, 상담자 인지 발달, 인지 구조

[†] 교신저자 : 손 은 정,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2)3277-2637 E-mail : wdcshon@hanmail.net

사례 개념화(case conceptualization 또는 case formulation)란 상담자가 내담자로부터 얻은 단편적인 정보를 통합하여, 내담자의 문제의 본질(nature)과 원인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Eells, 1997; Persons, 1989).

사례 개념화는 관계 형성 기술이나 의사소통 기술과 함께 상담자 교육 과정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교육 영역 중의 하나이다. 효과적인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훈련뿐만 아니라 맥락과 상황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사례 개념화 교육이 필요하다(Martin, 1990). 또한 내담자와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도 내담자의 심리적 역동과 행동을 이해하는 능력이 수반되어야 한다(Loganbil & Stoltenberg, 1983). 사례 개념화는 상담 계획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효과적인 문제 해결과 개입 전략 계획을 교육하기 위해서도 사례 개념화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Persons, 1989).

사례 개념화 교육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례 개념화에 대한 연구와 교육은 그동안 국내에서 많이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고기홍, 1994; 류진혜, 1999; 문수정, 1999; 이운주, 2001). 따라서 균형 잡힌 상담자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의 효과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례 개념화에 대한 연구와 그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사례 개념화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a) 가설 형성의 인지적 전략에 대한 연구(류진혜, 1999; Brammer, 1997; Borders, Fong - Beyette & Cron, 1988; Morran, 1986), (b) 가설 형성과 상담의 효과에 대한 연구(Morran, 1986; Morran, Kurpius, Brack, & Rozecki, 1995), (c) 상담자의 인지적 복잡성에 대한 연구(Brown & Smith, 1984; Holloway & Wolleat, 1980; Spengler & Strohmer, 1994; Tripodi &

Bieri; 1964), (d) 내담자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다룬 상담자의 인지 구조에 대한 연구(여혜경, 2000; Cummings, Hallberg, Martin, Slemom, & Hiebert, 1990; Kivlighan & Quigley, 1991; Martin, Slemom, Hiebert, Hallberg, & Cummings, 1989; Mayfield, Kardash, & Kivlighan, 1999), (e) 사례 개념화 교육에 대한 연구(류진혜, 1999; Kurpius, Benjamin, & Morran, 1985; Wantz & Morran, 1994), (f) 사례 개념화 요소에 대한 연구(이운주, 2001; 이운주와 김계현, 2002)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위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사례개념화는 상담자의 인지적 특성과 연관지어 연구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인지적 전략이나 인지적 복잡성에 대한 연구들은 상담자의 일반적인 인지적 특징에 대해 다루고 있으나, 실제 상담 사례에서 나타나는 정보들에 대해 상담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사례 개념화 요소에 대한 연구에서는 실제 상담 사례에 대한 사례 개념화의 구성요인을 밝혀주고 있으나,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의 인지적 특징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상담자가 어떻게 조직하고 이해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실제 상담 사례에 대한 상담자의 인지적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특성들이 사례 개념화 교육에 갖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상담 장면에서 나타나는 상담자의 인지적 특징은 주로 내담자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다룬 상담자의 인지 구조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초보 상담자와 전문 상담자간의 인지 구조의 차이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논의점들을 보여 주고 있다.

첫 번째로, 지식의 양에 있어서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Martin 등(1989)과 Mayfield 등(1999)의 연구에서는, 숙련 상담자가 초보 상담자보다 더 적은 수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혜경(2000)과 Kivlighan과 Quigley(1991)의 연구에서는 전문 상담자가 초보 상담자보다 가설의 수가 더 많았다. 따라서 전문 상담자와 초보 상담자간에 상담자 인지 구조의 양적인 차이에 대한 일관되지 못한 결과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지식의 양에 대한 논쟁에 대해 Shanteau(1991)는 지식의 양만으로는 전문가의 특성을 알 수 없으며 오히려 지식의 질적인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례 개념화에 대한 인지 구조의 연구들에서 보여주는 두 번째 논의점은 전문 상담자가 사용하는 지식의 유형에 대해 잘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이다. Kivlighan과 Quigley(1991)의 연구에서는 집단 상담의 상호 작용 과정에 대해 다루고 있어 개인 상담에서의 내담자에 대한 사례 개념화의 내용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Cummings 등(1990)의 연구에서는 몇 가지 특징에 대해 미리 가설을 설정해 놓고 그 가설에 따른 질적 차이만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전문 상담자와 초보 상담자간의 인지 구조의 전반적인 차이들을 포괄적으로 기술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Shanteau(1991)의 주장과 같이, 전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정보의 양이 아니라 정보의 유형이라면, 전문 상담자와 초보 상담자의 사례 개념화의 질적 차이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전문 상담자와 초보 상담자간의 인지 구조의 차이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전문가와 초보자의 두 집단을 비교하였으며, 상담자의 발달 수준별 특성을 살펴보는 않았다. 즉, 전문 상담자로부터 초보 상담자까지 사례 개념화

의 수준을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놓고 볼 때 각 단계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상담자 발달 수준에 따라 적합한 교육 내용을 제공해 주고, 발달 수준에 따른 교육 방법을 적용할 때 상담자 교육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심홍섭, 1998).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상담자 교육을 위해서 상담자의 각 발달 수준별로 적합한 사례 개념화의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발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각 발달 수준별로 나타나는 사례 개념화의 특징이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밝힐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 상담자와 초보 상담자의 인지 구조의 차이에 대한 연구들에서 나타난 논의점들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상담자의 인지 구조의 특징들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

먼저, 사례 개념화에 대한 상담자의 인지 구조에서 지식의 양에 대한 상반된 연구 결과들에 대해 재검토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선행 연구에서 잘 나타나지 않았던 사례 개념화에 대한 상담자 인지 구조의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질적 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상담자들의 인지 구조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개념들을 분류하여, 각 발달 수준별로 사례 개념화에 있어서 어떠한 질적인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선행 연구에서는 전문 상담자와 초보 상담자의 두 집단만을 비교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전문 상담자와 초보 상담자를 하나의 연속선상에 놓고, 전문 상담자, 중간 상담자, 그리고 초보 상담자의 세 단계로 나누어 각 발달 수준별로 나타나는 사례 개념화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상담자의 발달 수준별로 사례 개념화에 대한 인지구조에 양적인 차이가 있는가?
2. 상담자의 발달 수준별로 사례 개념화에 대한 인지구조에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는 총 36명이며, 서울, 경기 지역의 대학원생, 상담수련생, 그리고 대학의 학생생활연구소나 공공상담기관의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심홍섭(1998)과 문수정(1999)의 연구에서 국내 상담자들을 경력별로 초보, 중간, 숙련 상담자의 세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세 집단간에 상담 발달 이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발달적 차이를 보이고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상담자의 경력의 수준에 따라 전문, 중간, 그리고 초보 상담자의 세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상담자의 경력의 차이가 상담자의 발달 수준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표 1. 상담자의 발달 수준별 경력의 평균(표준편차)

	나이	교육 경력	상담 경력	수퍼비전 경력
초보 상담자 (N=12)	24.83 (2.82)	.42 (.51)	.17 (.38)	.00 (.00)
중간 상담자 (N=12)	30.67 (6.58)	6.0 (1.41)	4.75 (2.77)	30.75 (26.88)
전문 상담자 (N=12)	44.08 (7.57)	11.58 (5.18)	31.25 (8.85)	81.25 (60.68)

(단위: 학기수)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자의 발달 수준별 연령과 경력의 평균은 표 1과 같다.

도구

개념도 과제

본 연구에서는 인지 심리학자들이 인지 구조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고 있으며, 상담자의 인지구조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사용되었던(Martin et al., 1989; Mayfield et al., 1999) 개념도 과제를 사용하여 사례 개념화에 대한 상담자의 인지 구조를 알아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예비 연구를 통해 개발된 범주적인 개념도를 응용한 모형을 사용하여 개념도 과제를 실시하였다.

Mayfield 등(1999)의 실험에서는 숙련 상담자와 초보 상담자의 개념도 수행 시간을 측정하였고,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ayfield 등(1999)의 연구에서 측정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개념도 과제를 수행하는 각 단계별로 5분간의 시간을 주었다.

자극 CD

참여자들이 사례 개념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시 자극으로 상담 장면이 담긴 CD를 제작하였다. 이 CD는 실제 상담과정의 1회기를 각색, 축약한 후 모의로 녹화하였다. 상담 시간은 20분 정도이다.

절차

개념도 수행 절차

본 연구의 개념도 수행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고 개념도 수행이 익숙해지도록 돕기 위해서 연습 문제

를 풀게 한 후 CD로 제작된 실제 상담 장면을 보도록 했다. 상담 장면을 보는 동안에는 기록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CD를 본 후, 부록 의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개념도를 그리기 위한 지시문을 읽어 주고 지시문에 따라 개념도 과제를 수행하게 했다. 참여자가 개념도를 그리는 것을 마치고 나면, 개념도의 의미에 대해서 참여자에게 설명을 하도록 했고 참여자의 설명을 녹음하였다. 개념도 수행을 마친 후 상담자 경력 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개념도 평가 절차

본 연구에서는 화살표에 대한 상담자들의 반응이 다양하였기 때문에 개념도의 구성 요소 중 개념과 범주만을 평가하였고 화살표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았다.

개념도의 양적 평가 절차: 개념도의 양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개념의 수와 범주의 수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개념이나 범주의 수가 많을수록 양적으로 복잡한 인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개념도의 질적 평가 절차: 1) 개념도의 질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개념도에 나타난 개념들과 범주들에 대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개념도에 나타난 내담자의 문제를 적은 카드 하나하나를 내용 분석의 분석 단위로 삼았다. 유목을 설정하는 방법은 주어진 자료를 중심으로 유목을 결정하는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세 사람의 평정자가 내용 분석에 참여하였으며 평정자간 일치도는 .70이었다.

2) 본 연구의 내용분석에서 나타난 유목들은 단일 사례에 대한 유목들이기 때문에 다른 상담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특성을 나타

낸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유목들의 객관적인 의미를 파악하여 상담자의 인지 구조의 일반적인 특징을 찾기 위해 다차원 분석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차원 분석법을 실시하기 위해 먼저 각 상담자의 유목별 빈도를 각 상담자의 전체 빈도수로 나누어, 각 상담자의 유목별 백분율 점수를 구하였다. 각 상담자의 유목별 백분율 점수로 유목간 상관 계수를 구하여 상관 계수를 다차원 척도법의 유사성 지수로 활용하였다.

결 과

인지 구조의 양적인 차이

상담자의 각 발달 수준별로 개념도에 나타난 개념과 범주의 수의 평균(표준편차)은 표 2와 같

표 2. 상담자 발달 수준별 개념과 범주의 수의 평균 (표준편차)

	초보(N=12)	중간(N=12)	전문(N=12)
개념	11.08 (3.45)	13.75 (2.86)	15.92 (6.39)
범주	4.17 (1.70)	4.83 (1.70)	5.83 (1.99)

표 3. 상담자 발달 수준별 인지 구조의 양적인 차이에 대한 분산 분석

	분산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	F
개념	집단간	2	140.667	70.333	3.464*
	집단내	34	670.083		
	전체	36	810.750		
범주	집단간	2	16.889	8.444	2.604
	집단내	34	107.000		
	전체	36	123.889		

* $p < .05$

다. 상담자의 발달 수준별로 인지 구조의 양적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산 분석의 결과 개념의 수($F_{2, 34}=3.46, p<.05$)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범주의 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개념의 수에 대한 사후 검증으로 Tukey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전문 상담자($M=15.91$)와 초보 상담자($M=11.08$)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인지 구조의 질적인 차이

인지 구조의 질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개념'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17개의 유목들(전공에

대한 스트레스, 폭식,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 정체성의 혼란, 정서 처리의 미숙, 사고, 감정, 행동, 낮은 자아 존중감, 부, 모, 언니, 의사소통, 부모와의 갈등, 상담에 대한 기대, 더 탐색해야 할 점, 미분화)이 나타났고, 범주에 대한 내용분석 결과 8개의 유목들(호소문제, 다루어야 할 문제, 성격 역동, 가족 역동, 상담에 대한 기대, 더 탐색해야 할 점, 핵심문제, 미분화)이 나타났다.

발달 수준별 차이

내용분석에 의해 얻어진 각 유목들에서 상담자의 발달 수준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χ^2 단일표본분석을 한 결과는 표 4, 표 5와 같다. '개념'에 대한 χ^2 단일 표본분석의 결과를 살펴

표 4. '개념'에 대한 χ^2 단일표본분석

유 목	빈 도			χ^2
	초보	중간	전문	
전공에 대한 스트레스	10	12	11	.18
폭식	17	20	16	.49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	5	10	7	1.73
정체성의 혼란	1	3	10	7.44*
정서 처리의 미숙	2	4	13	10.84**
사고	18	18	18	.00
감정	6	17	16	5.69
행동	17	6	2	14.48**
낮은 자아 존중감	2	7	7	3.13
부	16	31	32	6.10*
모	7	11	26	13.68**
언니	1	0	3	1.57
의사소통	10	9	10	.07
부모와의 갈등	14	12	11	.38
상담에 대한 기대	2	2	5	.91
더 탐색해야 할 점	0	0	4	4.58
기타	8	3	0	6.75*

* $p < .05$ ** $p < .01$

표 5. '범주'에 대한 χ^2 단일표본분석

유 목	빈 도			χ^2
	초보	중간	전문	
호소문제	15	15	15	.00
다루어야 할 문제	2	4	15	14.00**
성격역동	8	17	13	3.21
가족역동	14	17	17	.38
상담에 대한 기대	1	1	3	.45
탐색해야 할 점	0	0	3	2.75
핵심문제	0	1	2	.56
기타	10	3	2	7.60*

* $p < .05$ ** $p < .01$

보면, 정체성의 혼란($\chi^2_2, N=14=7.44, p<.05$), 정서 처리의 미숙($\chi^2_2, N=19=10.84, p<.01$), 행동($\chi^2_2, N=25=14.48, p<.01$), 부($\chi^2_2, N=79=6.10, p<.05$), 모($\chi^2_2, N=44=13.68, p<.01$), 기타($\chi^2_2, N=11=6.75, p<.05$)에서 발달 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범

주'에 대한 χ^2 단일 표본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루어야 할 문제($\chi^2_2, N=21=14.00, p<.01$)와 기타($\chi^2_2, N=11=7.60, p<.05$)에서 발달 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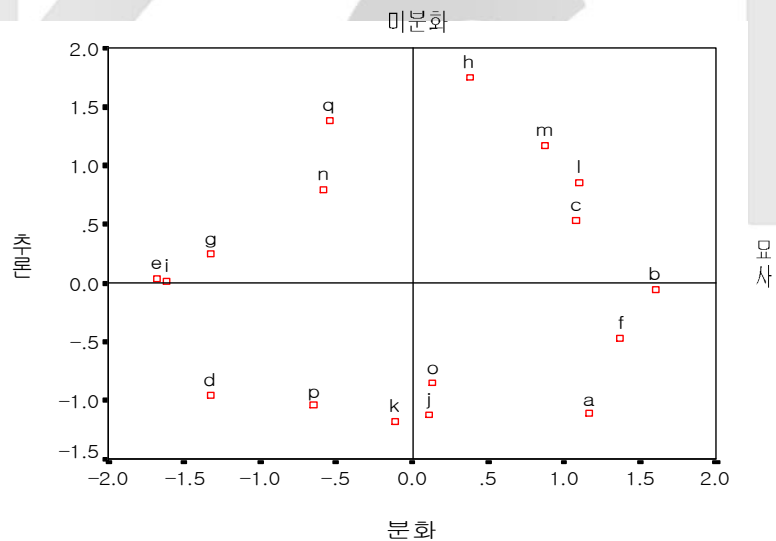


그림 1. '개념'에 대한 다차원 분석 : 차원 1(추론 대 묘사)과 차원 2(분화 대 미분화)에 의한 개념적 공간 (a 전공에 대한 스트레스, b 폭식, c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 d 정체성의 혼란 e 정서처리의 미숙 f 사고 g 감정, h 행동, i 낮은 자아 존중감, j 부, k 모, l 부모와의 갈등, m 의사 소통, n 언니, o 상담에 대한 기대, p 더 탐색해야 할 점, q 기타)

인지 구조의 의미있는 기저 차원

상담자의 인지 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을 발견하고자 다차원 척도법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다차원분석 결과, 사례 개념화에 대한 상담자의 인지 구조에 있어서 추론 대 묘사와 분화 대 미분화라는 두 가지 차원이 발견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 발달수준별로 인지 구조의 양적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고, 개념의 수에 있어서 이러한 가설이 지지되었다. 하지만 전문 상담자 집단과 초보 상담자 집단간에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중간 상담자 집단과 초보 상담자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초보 상담자에서 전문 상담자로 발달해 갈수록 개념의 수가 많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자극으로 사용된 사례의 길이가 길어진다면 지식의 양에 대한 발달 수준별 차이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 발달수준별로 인지 구조의 질적인 차이를 살펴보고자 개념과 범주에 대해 각각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개념에서는 17개의 유목을 얻었고 범주에서는 8개의 유목을 얻었다. 그 중 개념에서는 6개의 유목에서 발달 수준별 차이를 나타내었고, 범주에서는 2개의 유목에서 발달 수준별 차이를 나타내었다.

내용 분석에서 얻어진 유목들의 객관적인 의미를 파악하고자 다차원 분석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분화 대 미분화와 추론 대 묘사라는 두 가지 차원을 얻었다. 발달 수준별로 차이를 나타내었던 유목들을 다차원 분석에서 나타난 두 가지

차원들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개념에 나타난 유목들 중 ‘부’, ‘모’는 분화의 특성을 나타내는 유목들로서 발달 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초보 상담자보다는 중간 상담자가, 그리고 중간 상담자보다는 전문 상담자의 빈도수가 높았다. 이와 함께 개념에 나타난 유목들 중 ‘행동’, ‘기타’, 그리고 범주에 나타난 유목들 중 ‘기타’는 미분화의 특성들을 나타내는 유목들로서, 발달 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초보 상담자가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초보 상담자에서 전문 상담자로 발달해 갈수록 사례 개념화를 하는데 있어서 분화하는 특징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개념에 나타난 유목들 중 ‘정체성의 혼란’과 ‘정서 처리의 미숙’, 그리고 범주에 나타난 유목들 중 ‘다루어야 할 문제’는 추론의 특성을 나타내는 유목들이었으며, 이러한 유목들에서 발달 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전문 상담자일수록 더 많은 빈도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전문 상담자는 중간 상담자나 초보 상담자에 비해 사례 개념화를 하는데 있어서 추론하는 특징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 대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보 상담자에서 전문 상담자로 발달해 갈수록 양적으로 더 많은 개념을 사용하였다는 연구 결과는 사례 개념화 교육의 방법에 대해 중요한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즉,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상담전략을 세우는 훈련을 할 때, 한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와 전략을 찾아내는 것보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담자의 문제의 본질에 대해 가설을 형성하는 훈련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 상담자의 전문성이 높아질수록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 분화하는 능력이 높아지며 전문 상담자는 초보 상담자나 중간 상담자에 비해 추론하는 능력이 크다는 연구 결과는, 상담자가 발달 수준별로 상담 장면에서 나온 정보들을 처리하는 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분화하는 능력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초보 상담자들은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에 대해 단순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예: '부모와의 갈등'이라는 유목) 이해하는데 반해, 중간 상담자들이나 전문 상담자들은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예: '부'라는 유목-적개심, 친밀해지고 싶은 마음; '모'라는 유목-분노, 동일시 등)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추론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초보 상담자들이나 중간 상담자들은 내담자가 호소한 문제(예: '폭식'이라는 유목)를 중심으로 내담자를 이해하고 있는데 반해, 전문 상담자들은 내담자의 호소문제를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담자의 추론에 의해 상담자가 보는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이해의 틀(예: '정서처리의 미숙'이라는 유목-감정의 억압, 자기 표현의 부족)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전문 상담자의 내담자에 대한 이해의 틀은 상담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예: '다루어야 할 문제'라는 유목).

이러한 결과들은 상담자의 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내담자에 대해 더 다양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운주와 김계현(2002)의 경력이 높은 상담자일수록 내담자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상담 전략에 초점을 맞춘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들은 모든 상담자들에게 동일한 영역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사례 개념화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의 발달 수준별로 사례 개념화의 교육 내용이 달라져야 함을 보

여주고 있다. 내담자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분화의 능력은 초보 상담자에서 전문 상담자로 발달해 갈수록 심화되는데 반해, 추론하는 능력은 초보 상담자나 중간 상담자에게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전문 상담자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상담자 교육에 적용해 볼 때, 초보 상담자들에게는 먼저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에 대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하며, 호소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훈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나면, 이 훈련을 더욱 심화시켜가면서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추론을 하는 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자의 인지 구조가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복잡하게 발달해 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어 상담자의 전문성이 높아 질수록 상담자의 인지가 복잡하게 발달해 간다는 상담자의 일반적인 인지적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지지하고 있다(Brown & Smith, 1984; Holloway & Wolleat, 1980; Spengler & Strohmmer, 1994; Tripodi & Bieri, 1964).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실제 상담 장면에서도 상담자의 인지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상담자의 발달 수준별 사례 개념화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상담자 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동시에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개념도의 화살표의 내용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했다. 화살표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개념도를 그리는 과정에서 전문 상담자일수록 복잡한 내담자의 문제를 평면의 화살표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입체적인 접근으로 상담자의 인지 구조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실제 상담 과정을 모의로 녹화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실제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가 사례 개념화를 하는 과정은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발달 수준별로 적합한 교육 내용을 발견하였으나 그러한 요인들이 상담자 교육에 활용되었을 때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양적인 복잡성에 대한 훈련과 함께 질적인 복잡성을 나타내는 추론과 분화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이 훈련이 상담자의 발달 수준별로 어떤 교육 효과를 가져다주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기홍 (1994). 상담면접과정에 대한 상담준전문가 교육프로그램 개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진혜 (1999). 상담자 교육을 위한 인지 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수정 (1999). 상담수퍼비전 교육내용 요구분석 : 상담자의 경력수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홍섭 (1998). 상담자 발달수준 평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여혜경 (2000). 전문상담가와 초심상담가의 내담자에 대한 가설형성의 차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주 (2001). 상담 사례개념화 요소목록 개발 및 수퍼비전에서 중요하게 지각되는 사례개념화요소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 79-94
- 이윤주, 김계현 (2002). 상담자의 사례개념화 수행 능력과 상담 경력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 257-272.
- Borders, L. D., Fong-Beyette, M. L., & Cron, E. A. (1988). In-session cognition of a counseling students: A case study.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28, 59-70.
- Brammar, R. (1997). Case conceptualization strategies: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st's experience levels, academic training, and mode of clinical inquiry.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9, 333-351.
- Brown, P. B., & Smith, H. D. (1984). All-inclusive conceptualization as a dimension of trainee empathic responding.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23, 341-345.
- Cummings, A. L., Hallberg, E. T., Martin, J., Slemmon, A., & Hiebert, B. (1990). Implication of counselor conceptualizations for counselor education.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0, 120-134.
- Eells, T. D. (1997). *Handbook of psychotherapy case formula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Holloway, E. L., & Wolleat, P. L. (1980). Relationship of counselor conceptual level to clinical hypothesis form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 539-545.
- Kivlighan, D. M. Jr., & Quigley, S. T. (1991). Dimensions used by experienced and novice group therapists to conceptualize group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415-423.
- Kurpius, D. J., Benjamin, D., & Morran, D. K.(1985). Effects of teaching a cognitive strategy on counselor trainee internal dialogue and clinical hypothesis form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 263-271.

- Loganbil, C., & Stoltenberg, C. (1983). The case conceptualization format: A training device for practicum.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22, 235-241.
- Martin, J. (1990). Confusion in psychological skills train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8, 402-407.
- Martin, J., Slemon, A. G., Hiebert, B., Hallberg, E. T., & Cummings, A. L. (1989). Conceptualization of novice and experienced counsel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395-400.
- Mayfield, W. A., Kardash, C. M., & Kivlighan, D. M. Jr. (1999). Differences in experience and novice counselor's knowledge structures about client: implications for case conceptualiz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504-514.
- Morran, D. K. (1986). Relationship of counselor self-talk and hypothesis formulation to performance lev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 395-400.
- Morran, D. K., Kurpius, W. J., Brack, G., & Rozecki, T. G. (1995). Relationship between counselors' clinical hypotheses and client ratings of counselor effectivenes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2, 655-660.
- Persons, J. B. (1989). *Cognitive therapy in practice: A case formulation approach*.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Shanteau, J. (1991). *How much information does an expert use? Is it relevant?* Unpublished Paper: Kansas State University.
- Spengler, P. M., & Strohmer, D. C. (1994). Clinical judgement biases: The moderating roles of counselor cognitive complexity counselor client preferenc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1, 8-17.
- Tripodi, T., & Bieri, J. (1964). Information transmission in clinical judgements as a function of stimulus dimensionality and cognitive complexity. *Journal of Personality*, 32, 119-137.
- Wantz, D. W., & Morran, D. K. (1994). Teaching counselor trainees a divergent versus a convergent hypothesis-formation strategy.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 69-73.

원고접수일 : 2002. 9.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2. 11. 25
게재결정일 : 2002. 12. 3

The Differences of Case Conceptualization According to Counselor's Development Levels: Focus on Cognitive Structure Through Concept Map

Eun-Jung Sohn

Hae-Sung Lee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Presid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effective counselor education method and the knowledge about case conceptualization. So we examined the differences of cognitive structures about case conceptualization according to counselor's developmental level. The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s there quantity differences in cognitive structure of counselors according to each development level? Second, is there any quality difference in cognitive structure of counselors according to each development level? We used Concept Mapping Task (CMT) to assess counselor's cognitive structure about case conceptualization. And we looked into the differences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haracteristics presented at concepts and categories in CMT among expert, intermediate, and novice counselor group.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quantitative analysis resulted in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ree groups in the number of concept. Second, in the results of qualitative analysis, 17 items appeared in the content analysis on concept and 8 did in content analysis on category. Compared with differences on concept items among three group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t 'identity confusion', 'immaturity in dealing with emotion', 'action', 'father', 'mother', and 'sundries'. Compared with differences on category items among three group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roblems to be dealt with' and 'sundries'. In order to find out general meaning of these items, Multidimensional Scaling(MDS) was taken. In the result of MDS two dimensions were found. They are inference vs. description and differentiation vs. undifferentiation. And after we examined the meaning of the items which showed differences according to development levels, we knew that expert counselors use more inference ability than intermediate and novice counselors and that cognitive structure is differentiated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from novice counselor to expert counselor.

Key Words : case conceptualization, cognitive map, cognitive structure, counselor cognitive development, counselor education

KCS I

K C I

K C I